

진도개

윤 신 근

진도개는 분명 한국개이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 마스코트가 진도개여야 한다는 여론 또한 거세다.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힘차게 말아 올린 꼬리, 쫓긋 솟은 귀, 야무지게 치켜 올라간 눈초리, 다부져 보이는 체구, 그 무엇보다도 나무랄 데가 없다.

진도개는 바로 우리 한민족을 닮았다. 그래서 충직하고 인간적이다. 우리가 신의와 도리를 존중하듯 진도개도 주인과 한번 맺은 인연은 죽음으로 지켜간다.

영국개인 불독은 집요한 영국인을 닮았고, 감정이 예민한 푸들은 프랑스인과 비슷하다. 또 독일에는 이지적이고 엄격한 셰퍼드가 있으며, 중국에는 좀처럼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 차우차우가 있다.

개는 바로 그 나라 국민들의 인간성을 상징하는 동물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진도개는 한국인의 성향을 속 빼닮은 개이다. 조금은 급하고 어설피지만 진실하고 정이 많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점도 한국인과 비슷하다.

우수한 품종 만큼이나 “영육의 역사”를 감내해야 했던 진도개는 어쩌보면 우리 민족의 자화상인지도 모른다.

삼국시대 백제에서, 신라에서 주인을 따라 일본으로 건너갔던 진도개들은 지금의 시바견과 저패니즈 썩을 만들어 냈다. 또 일제 36년동안 민족전 말살정책으로 인해 말로 다 못할 고초를 겪기도 했다.

그래서 진도개는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갖고 있다. 은근과 끈기, 신의와 믿음으로 대변되는 한국정서.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란 광고문구가 있듯이 진도개는 ‘신의와 의리’의 상징이다. 수천리를 걸어서 주인을 찾아오는 충직함은 한국인의 은근과 끈기를 대변하기에 충분하다. 물론 민족 특유의 우월성과 진취성도 갖고 있다.

진도개는 영리하고 용감하기로 으뜸이다. 수렵성도 뛰어나 ‘사냥의 명수’로도 불린다.

매우 영리하고 용감해 자신보다 큰 짐승과 대결해도 충분히 거꾸러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귀소본능 또한 뛰어나 한번 맺은 주인은 수백리를 걸어서라도 다시 찾는 ‘의리의 사도’였다. 부리부리한 두 눈은 어떤 경쟁자도 단번에 제압한다. 목소리는 우렁차고 귀는 앞으로 약간 숙인듯 직립형태를 띤다. 주의력도 뛰어나다. 꼬리는 힘차게 말아 올려져 자신감을 표시한다. 진도개가 한국개를 대표하는 것은 당연했다.

진도개의 표준체형을 살펴보자. 진도개는 수컷의 경우 키가 45~58cm, 암컷은 43~53cm이다. 얼굴을 역삼각형이어야 하며 진도개의 상징인 귀는 태어난지 3~6개월이면 쫓긋 선다. 눈은 삼각형이며 눈꼬리는 위로 향해 있다. 눈동자는 짙은 갈색이다. 털은 윤기가 흐르고 얼굴은 부드러운 털이 촘촘히 나있다. 털색은 황색이나 백색이 주종이다. 먹는 것은 아무것이든 잘 먹는다. 경우에 따라선 들에 있는 쥐나 두더지도 잡아먹는다. 한마디로 거친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는 것이 바로 진도개이다. 세계의 어느 명견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진도개에 관한 이야기는 많다. 주인을 구한 얘기도 있고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사냥

도 해낸다는 이야기도 있다. 모두가 우리 개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내용이어서 기분이 좋다.

‘민족견’인 우리 진도개는 ‘민족견’답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일제시대에는 일제의 민족혼 말살 정책의 제물이 되었고 해방후에는 사람들의 치부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

일제시대, 일본은 자기들의 정통성을 살리기 위해 산간오지에 남아있던 아키다견을 일본의 천연기념물로 지정, 범국민적인 토종견 보호운동을 폈다. 이때 경성제대에 몸담고 있던 동물학자 모리가 우연히 진도에 왔다가 시바견과 비슷한 진도개를 발견, ‘내선일체’의 도구로 진도개를 활용했다. 일제는 진도개를 심사해 좋은 품종만 ‘합격’시켜 등록시켰다. 그리곤 등록을 하지 않은 진도개에 관해선 다치는대로 때려잡아 가죽을 벗겨 전쟁물자로 활용했다.

해방과 함께 진도개는 또 다른 수난을 겪어야 했다. 1952년 진도를 방문한 이승만 대통령이 진도개에 감동해 돈 500환을 주면서 세계적인 개로 기르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는 한동안 잊혀졌던 진도개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고 돈벌이에 급급한 민간인들은 무작정 진도개를 육지로 내다 팔았다. 그러나 육지로 나간 진도개들은 낯선 환경과 어설픈 사육으로 90%이상 죽어갔다. 이로 인해 진도에는 우수견이 바닥나고 질 낮은 개들만 남게 됐다. 1962년 진도개 보호에 위기를 느낀 정부는 뒤늦게 문화재 보호법을 제정해 진도개의 진도섬내 반출을 막았다. 현재 진도에는 4만여마리의 진도개가 있다. 주로 진도군 임해면 상리의 황구마을과 고군면 유교리의 백구마을 등 시범마을에서 집중 사육되고 있다.

그럼 우리 진도개는 언제 이 땅을 밟았을까? 안타깝게도 아직 정확한 기록은 없다. 단지 일제시대인 1938년에 일본사람 모리교수에 의해 진도개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는 기록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다만 이야기로는 몇가지가 전해진다.

고려때 중국 남송의 무역선이 진도 근해를 지나던 중 풍랑을 만나 침몰하자 이 배에 실려있던 개가 헤엄쳐 나와 진도개의 조상이 되었다는 설이 하나 있다. 또 하나는 고려 말기에 삼별초군을 진압하기 위해 들여온 몽고군 군견이 남아 진도개의 조상이 되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이 두가지 설은 모두 진도개가 북방

에서 전래되었다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우리 개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연구발표도 크게 늘고 있다. 연구 발표중에 가장 학계의 관심을 끌고있는 것이 바로 ‘구석기시대의 진도개 설’이다.

구석기 패총에서 발견된 개의 뼈를 근거로 발표된 이 학설은 해남지방에 진도개가 살았다는 것. 진도개 명산지인 진도가 해남지방과 매우 가깝다는 점에서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 개의 기원도 BC100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럼 우리의 진도개를 어떻게 보호, 육성해야할 것인가? 필자는 우리 진도개를 통해 한민족 세계화를 실현시키자고 주장한다. 쉽게 말해 진도개가 ‘한민족 세계화’의 첨병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민족을 대변하는 동물로 진도개 만한 동물은 없다. 전세계에 한민족을 알리는데 진도개를 앞세우자는 것이다. 21세기의 첫장을 여는 월드컵에서 우리의 진도개를 마스코트로 정해 스타로 만든다면 한국은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질 수 있다.

자연스럽게 한국은 ‘보신탕의 나라’, ‘동물학대국’이란 오명을 말끔히 해소할 수도 있다.

‘보신탕 국가’관 시각 대신 동물보호 실천국으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사회적인 파급효과도 또한 엄청날 것이다.

환경보호, 동물보호에 무게를 두는 국제질서를 한국이 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동물보호를 하지 않는 나라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대접받을 수 없는 것이 현재의 국제상황이다.

마침 진도개는 지난 11월 3일 세계축견연맹(FCI)으로부터 특별상을 수상, 세계적인 견종으로 까지 인정 받은 터이다. 또한 진도개를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정계, 관계, 학계, 문화계, 언론계, 동물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제세계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바 있다. 해외공관원과 교포들에게 진도개 보내기 운동과 미국의 LA, 일본, 오사카 등지에서 진도개 콘테스트 등을 열어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필자가 진도개의 2002년 월드컵 마스코트로의 의견을 제시했을 때 각계로부터 쏟아진 격려와 박수는 상

상을 초월했다. 대부분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 '믿는다' 등의 반응이었다. 실로 놀라웠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묵묵히 우리를 따라 왔던 친구들에게 황금빛 월계관을 씌워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도 동물애호가들을 중심으로 시바견이 일본족 마스코트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만약 양국의 대표견종이 월드컵 마스코트로 선택된다면 우리는 은근히 문화전파국으로서의 우월성을 과시할 수도 있다.

21세기를 여는 첫 지구촌 축제를 동양의 명견인 진도개가 이끌어가는 모습은 한국 국민들의 세계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진도개가 국제적인 명견으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를 평가할 때 사나움, 용맹성으로만 대변되는 시대는 끝났다.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는 친화력이나 온화함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진도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훈련이 따라줘야 할 것이다.

이제 한국도 우물안 개구리 같은 단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내 애견계도 실질적이면서도 국제적인 감각을 넓혀나가야 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 진도개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자랑스런 우리 개가 진정한 세계견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진도개가 세계견이 되기 위해선 내적으로 충실해야 한다. 정부의 진도개 정책부터 달라져야 한다. 관 위주의 정책보다는 민간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와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 관 위주의 정책이 아닌 민간위주의 국견정책을 펴고 있다. 그 결과 시바견이 한국에서 건너온 종이라는 학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하고 품종을 개발해 세계적인 일본견으로 만들었다. 물론 아키다, 훗카이도견 등 대부분의 개들도 국제적인 품종으로 잘 키워냈다. 이제는 10여종의 일본개들이 어엿한 세계공인 견종으로 활약하며 나름대로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일본에서는 민간단위의 단체들이 아주 자유스러우면서도 합리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애견전람회에서는 어렵사리 개발하고 길러낸 애견품종들을 정당하게 심사해 육성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민간 나름대로 끊임없는 반성과 개발이 필요하다. 사소한 이권때문에 가짜 순수혈통으로 둔갑하고 정통 진도개가 개인적인 이기심때문에 가짜로 몰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수많은 협회들도 이젠 정리되어야 한다. 돈만 주면 개 혈통서가 발행되고 1년에 몇번 안되는 애견전람회가 축제가 되지 못하고 씩씩한 뒷맛을 남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꼼꼼히 생각해 봐야 한다. 심사위원들은 개인적인 친소를 떠나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심판을 내려 한국애견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한다.

BST에 대하여

부스틴-에스와 바디컨디션(BCS)과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바디컨디션이란 체중의 증감이 아닌 체지방의 축적정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젓소는 체지방을 이용하여 우유를 생산하는데 바디컨디션이 3.0 이상이 되면 젓소에 무리없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2.5 이하가 되면 큰 효과를 볼 수 없었으며 다음 비유기에 정상적인 상태로 도달되기 어렵고 대사성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스틴-에스를 투여할 경우 체내의 체지방 분해가 많아지므로 적정 사양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바디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